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활동:  
호주 박물관의 최근 진척에 관한 짧은 보고서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Pacific: a Brief Report on Recent Progress  
at the Australian Museum

폴 모나건(Paul Monaghan)  
레슬리 크리스티디스(Leslie Christidis)



#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활동: 호주 박물관의 최근 진척에 관한 짧은 보고서

- 폴 모나건(Paul Monaghan)  
호주박물관(Australian Museum) 프로젝트매니저
- 레슬리 크리스티디스(Leslie Christidis)  
호주박물관(Australian Museum) 부관장

## 개요

이 논문은 2007년, 시드니의 호주박물관에서 열린 무형유산 포럼에 관하여 보고서이다. 피지, 괌, 뉴질랜드, 노퍽 섬(Norfolk Island), 팔라우(Palau),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Banuatu), 압(Yap)에서 온 포럼 참가자들과 시드니의 유산 커뮤니티 회원들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태평양 국가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호주 박물관은 그들의 보호 노력에서 그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였다. 그 포럼에서는 전통 지식 보유자들의 관심사가 고려되었고 다수의 우려사항들이 언급되었다. 이 우려사항들은 무형유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호주 박물관(Australian Museum)의 무형문화유산 사업(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gram)은 소장품 기반의 연구(무형유산과 유형유산을 연결)와 호주 본토(Indigenous Australia) 및 태평양 지역 디지털 접근/교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다.

2007년 5월, ICOM 호주박물관 협력관계 사업(ICOM Australia Museum Partnerships Program; IAMPP)이 지원하는 워크숍이 시드니의 호주박물관에서 열렸다. 이 신진 문화센터 워크숍(Emerging Cultural

Centres Workshop)에서 태평양 지역 내 문화 기관들의 대표자들은 5일간 신진 문화센터 및 박물관들의 능력강화에 관한 주제를 토론하였다. 주제는 건축 및 펀딩 문제부터 소장품 관리와 지적재산 문제까지 다양하였다.<sup>1</sup> 피지, 팔라우, 사모아, 통가, 압의 의뢰된 대표자들은 물론 괌, 뉴질랜드, 노퍽 섬, 바누아투의 초청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워크숍의 특별 세션이었던 무형적 진척: 신화인가 현실인가?(entitled Intangible Progress: Myth or Reality?)라는 제목의 포럼은 참가한 문

회계 리더들은 물론 시드니의 유산 커뮤니티의 회원들에게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관한 각자의 견해와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되었다. 이 포럼의 주목적 중 하나는 호주박물관이 전통 관습의 재현을 위하여 태평양 관련 민족지학적 사물 6만여 점의 소장품을 태평양 문화유산 기관 및 커뮤니티들과의 협력관계 속에 가장 잘 활성화시킬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 짧은 보고서는 전통 지식 보유자들이 제기하거나 이들을 대신해 제기된 다수의 우려사항으로서, 보호기법(safeguarding practice)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방법론적 문제가 되는 우려사항들에 초점을 맞춘다. 포럼에서는 글로벌화가 계속 전통 지식 및 기술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이 쇠퇴에 기여하는 보호 기법이 동원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명확히 부각되었다. 생물학적으로 은유하자면,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통 지식 자체의 특별한 사례나 탈맥락화된 표현에만 유의할 것이 아니라 문화(살아 있는 문화로서)의 전통 지식과 표현을 뒷받침하는 기저의 구조와의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호는 사물이나 퍼포먼스의 물리적 묘사를 기록하기보다는 사물이나 언어적 표현을 둘러싼 의미(예컨대, 왜, 언제, 어떻게, 누가, 무슨 목적으로 행동/이야기하는가?)를 기록하는 쪽에 더 관련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문화적 관습의 부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점이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사진이나 박물관 방문에 기초해서 사물을 재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물을 사용하기 위한 복잡한 지식망과 사회 정황은 회복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바꿔 말하면, '두꺼운' 인벤토리를 만드는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sup>2</sup>

그러나 두꺼운 인벤토리를 만들 (예컨대 문화 매핑을 통해) 필요성은 느끼지만 태평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화석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전통 지식 보유자들은 외국의 기록보관소에 있는 문화적 관습 이야기들이 그들의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전통에 부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권위적 분위기를 얻는 것을 보면서 살아 있는 문화의 특징들이 화석화 된다는 인식을 경험하였다. '순수' 또는 '진정성'의 근본 개념은 인류학 문헌에서는 조소를 받지만 일부 분야(법률, 정치)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인식들의 효과로 인해 전통 지식 보유자들은 그들의 지식을 종이에 적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포럼 참가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마을들에서 수집한 정보가 국립 문화센터에 보


관되어 있는데 마을 차원에 거의 피드백이 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론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과정에 대한 인식강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화적 다양성과 변화 간의 역동적 관계에 주목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 부흥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 박물관 소장품들을 활성화시키는 경우를 위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며, 문화유산 기관과 전통지식 보유자 사이에 좀 더 개방적이고 공유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촉진시킬 것이다.

오늘날에는 문화유산 회의에서 소유권의 적절한 보호와 지적 재산 및 전통 지식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포럼 참가자들이 품은 우려의 깊이와 급속히 진화하는 이 관습세계에 관련된 법적-윤리적 문제의 복잡성을 이 짧은 보고서 안에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의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서는 전통 지식을 보호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음을 전달할 수는 있다. 기관의 시각에서 보면, 적어도 문화유산 자료의 접근 및 사용 조건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하려 하는 자료의 파괴에 기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을 차원에서는 인벤토리 생성이나 문화 매핑 같은 비전통 맥락을 위해 전통 지식을 수집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통적 지식전달 체계가 특정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지식을 물려 받을 책임자가 없고 (예: 취업을 위해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 도시로 떠나버린 경우), 다른 한 편으로는 정상적으로는 그 지식을 물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전수해줄 수밖에 없는 (예: 이웃 마을이나 지역의 문화매핑 현장조사자) 딜레마가 발생할 것이다. 좀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전자기술의 부상으로 전통지식의 비전통적 전달에 관련된 문제가 심화된다. 이것은 글로 적힌 (또는 디지털 기록된) 전통문화 이야기가 그 지방에서는 사라지고 다른 누군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가수 딥 포레스트(Deep Forest)의 노래 'Sweet Lullaby'처럼)<sup>3</sup>. 전통 지식과 지적 재산을 보호할 표준 및 규약의 개발보다 앞서 나가는 이러한 신기술 출현의 문제는 전체 기관 및 커뮤니티에 큰 우려가 되고 있다.

포럼의 중요한 목적은 박물관 소장품이 문화 부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것이었다. 저자의 발표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호주박물관에서는 새로운 용어이지만, 결코 새로운 활동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수년 동안 연구자들은 부실하게 문서화된 사물들의 사본을 원래의 커뮤니티로 돌려보내 그 유물을 둘러싼 맥락적

지식을 수집하였다. 1980년대부터 호주박물관은 유물을 본국에 송환하는 분야의 선구자였다. 최근에는, 문화 부활에 참여하는 태평양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태평양 문화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소장품 연구 방문을 개최하였다. 2003년, 에로망고(Eromango(바누아투)) 섬의 소피 넴반(Sophie Nemban)은 여성의 물질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본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귀국 후 그녀는 전통적 나무껍질 의복제작에 관한 일련의 워크숍을 수행하였다. 그 노력의 결과로 3년 이내에 대략 150점의 나무껍질 옷이 제작되었다. 연구 방문 동안 그녀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본 적은 없었던 전통 디자인을 '발견'하였다. 2006년, 역시 바누아투의 에로망고섬의 치프 우민두루 제리 타키(Chief Uminduru Jerry Taki)는 시(Sie)어와 비슬라마(Bislama)어로 사물 100점의 상세한 정보(이름, 기능, 디자인 등)를 주었다. 그를 위해 많은 사물을 사진 촬영하였고, 그는 다수의 DVD와 음성녹음본을 들고 귀국하였다. 그는 귀국 후 섬에서 DVD들을 틀어주었고 큰 관심을 불러모았으나 부흥 활동에서 그것들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아직 박물관에

보고되지 않았다.<sup>4</sup> 박물관은 커뮤니티 회원들, 연구자,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형 유산을 소장품 데이터베이스에 올렸다. 2007년, 본 박물관은 소스 커뮤니티(source community)와 전통지식 보유자들을 위한 지원을 증대하여 우리의 문화 리더 방문 프로그램(Visiting Cultural Leaders Program)을 확대하고 시드니의 디아스포라(Diaspora) 커뮤니티와 교류하였다.

사물의 역사를 연구할 때 박물관과 소스 커뮤니티가 협력할 필요성이 포럼 내내 반복해서 대두되었다. 태평양 지역의 방문자들은 살아 있는 문화에 대한 그들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누군가는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가두어두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박물관 소장품을 연구하면 그들은 먹을 음식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파푸아 뉴기니, 태평양군도박물관협회(Pacific Islands Museums Association, PIMA)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리의 소장품을 개방하는 등 호주박물관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신한다. 

## 주석

- 1 태평양군도박물관협회(Pacific Islands Museums Association)는 협력기관 역할을 하였다.
- 2 Geertz, Clifford, 1973. 'Thick Description: Toward an Interpretive Theory of Culture' 참고,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York,BasicBooks,pp.3-30참고.
- 3 Feld, Steven, 2000. 'A Sweet Lullaby for World Music', Public Culture 12(1), pp. 145-171.
- 4 커크 허프먼(Kirk Huffman)은 바누아투에 관련된 이 소장품 기반의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